

現代醫學의 새 물결 메가비타민療法(V)

◇... 前미국생화학회 회장인 로저 J...
◇... 윌리엄즈 박사는 그의 저서인「N...」
◇... 「Nutrition Against Disease」에...
◇... 「생명의 사슬」에 대한 이론...
◇... 을 제창하고 있다. 「생명의 사...
◇... 슬」이란 8종류의 필수아미노산...
◇... 16종류의 미네랄, 20종류의 비타...
◇... 민들이 신체내에서 조직되어 생...
◇... 명활동을 건전하게 유지하고있...◇

미네랄 (I)

◇... 여 이것들이 모두 한데가 되어...◇
◇... 「사슬」을 만들고 있는데 이사...◇
◇... 슬을 구성하고 있는 영양소는제...◇
◇... 각기 그양에있어서 절대필요수준...◇
◇... 이 있어서 그어느것 하나라도필...◇
◇... 요수준이하가 되면 「생명의 사슬...◇
◇... 」은 약해져서 건강상태가 무너...◇
◇... 지고 마침내는 질병에 걸리게...◇
◇... 된다고 한다. ...◇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의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의 3대영양소를 구성하는 탄소·수소·산소·질소·유황등의 5가지 원소가 전체의 93.1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칼슘·인·나트륨·칼륨·염소·마그네슘등의 비교적 양이 많은 미네랄이 6.78%를 차지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대략 54종으로 추정되는데 위의 11종을 제외한 나머지 43종의 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0.04%에 지나지 않는다.

이 0.04%의 미량미네랄 성분이 우리들의 생명을 지탱하고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분자생물학 및 분자정확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텍사스주립대학의 슈파르홀츠 교수는 「20세기의 전반은 비타민 연구의 황금시대였으나 지금은 미네랄의 연구에로 관심이 옮겨졌다」고 하였다.

과거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그리고 필



元 泰 珍
〈成人病豫防協會專門委員〉

되어있다.
心臓의 운동에는 칼슘·칼륨·나트륨·마그네슘등이 관여하는데, 특히 마그네슘이 心筋硬縮의 발작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현재 미국에서는 심장마비를 방지하는 용광용의 마그네슘注射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마그네슘은 천연의 칼슘길항제로서 세포내액의 전해질의 성분이다. 그리고 최근 不整脈에 대한 셀레늄과 판가민산(비타민 B12)의 두드러진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당뇨병의 경우 크롬·망간·아연·칼륨·칼슘등이 필수적인 미네랄인데, 그 가운데서도 크롬(Chromium)은 내당인자(G.T.F)의 구성인자로써 중요시 되고 있다.

난치성질환에 속하는 천식에는 망간·마그네슘·판가민산등이 필수적인 영양물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망간은 중요한 미네랄이다.

前立腺질환에는 아연과 셀레늄이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아연과 셀레늄은 임포텐츠에도 위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렇듯 여태껏 별로 관심을 끌지 못

體液의 酸·鹽基平衡

인체는 체중의 약65%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體液이라고 한다. 體液은 크게 나누어서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으로 구분되는데 혈액·림파액·조직간액등은 세포외액에 속한다.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은 마치 海水와淡水와 다른 것처럼 미네랄의 구성성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세포내액은 주로 칼륨과 마그네슘이 그리고 세포외액은 주로 칼슘과 나트륨이 산·알칼리의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칼륨과 나트륨, 마그네슘과 칼슘이 각기 길항작용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이 4가지 미네랄의 농도가 밸런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체액의 산·알칼리平衡은 주로 이 4가지 미네랄에 의해 컨트롤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포내액은 주로 칼륨이온의 수준이 저하되면 체액은 산성으로 기울게 되고 세포외액에서는 칼슘이온의 수준이 저하되면 체액은 산성으로 기울게 된다.

그리고 세포외액의 나트륨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나트륨과 길항작용이 있는 세포내액의 칼륨을 체외로 배설시켜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

7.65이상의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죽을(死)을 뜻한다.

인체내에서는 여러가지 효소를 만들어 소화나 영양대사, 약물대사에 쓰고 있는데, 이들 효소는 제나물대로 좋아하는 환경조건이 있어서, 예를들면 단백질분해효소인 펩신(Pepsin)은 산성에서,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제(Lipase)는 알칼리성에서, 그리고 대부분의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약알칼리성에서 각기활성을 띠게 된다.

인체내에는 약 300 만건의 생화학반응(대사)이 일어나고 있는데, 1분당 1효소의 원칙에서 보면 효소의 종류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이 엄청난 효소가 만일 그활성을 잃게 된다면 자연히 대사활동도 둔하게 되어 병적인 상태가 되고 심하면 생명현상이 정지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알기쉬운 예로 체온계의 눈금이 35℃~43℃까지 있는것은 그 이하나 이상에서는 이미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내에 있어서 체액의 산·알칼리 밸런스를 컨트롤하는 장기는 신장이다. 인체에는 생체항상성(Homeostasis)이란 기능이 있어서 항상 체액의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기능이 저하되어 지속적인 미네랄의 섭취부족, 알콜이나 산성식품의 과다섭취, 미네랄간의 길항작용등에

인체는 총 54종의 원소로 구성되는데, 그중 탄소·수소·산소·질소·황산등이 93.18%를 차지하고 K·P·Na·Cl·Mg등의 미네랄이 6.78%에 이른다.

과적으로는 세포내액의 산성화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소금(염화나트륨)의 과다섭취는 칼륨의 배설을 촉진하며, 여기에 칼륨을 함유하는 채소와 과일등의 섭취부족은 체액의 산·알칼리 밸런스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포외액의 칼륨은 마그네슘과 인과는 길항작용이 있으므로 칼륨과 마그네슘의 비율은 2:1이 이상적이며 인산염을 함유한 청량음료수나 가공식품의 섭취는 자칫 칼륨의 수준을 떨어뜨려 혈액을 산성으로 기울게 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에서는 PH7을 중성이 라고 수치가 높아질 수록 알칼리성으로 되고 수치가 낮아질수록 산성으로 되

위해서 언밸런스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끝내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미네랄은 효소의 활성을 위한 체액의 산·알칼리 평형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네랄은 인체의 구성요소이며, 효소를 만드는 원료로서의 보조소작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誤導되고있는 酸性體質論

근래 자연식의 붐을 타고 이른바 「산성체질」이란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의미가없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체액의 산성 또는 알칼리성 상태는 체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체액의 PH는 유아기에는 높고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아침엔 높고 저녁무렵엔 낮아지며 스트레스상태나 생리기간중에는 떨어진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체온과도 같은 것으로 체질이라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신체내의 장기나 조직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간은 PH 7.35, 골수는 PH7.35, 뇌는 PH 7.05, 망막은 PH 7.00, 신경은 PH 6.80 으로 각기 다르다.

보통 체액의 PH를 측정할때에는 혈액으로 하는데, 혈액의 산·알칼리 평형을 좌우하는 것은 「칼슘이온」이다.

혈액중에는 보통 1dl 속에 약 1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중 6mg은 단백질결합형의 칼슘이고 4mg은 이온상태의 칼슘이다. 이 4mg에속하는 칼슘이온이 낮아지게 되면 혈액은 산성으

<10면에 계속>

빈혈치료에는 비타민 B12 만으로는 안돼

망간·아연·몰리브덴等 미량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必要

수아미노산, 필수지방산과 같은 영양물질은 다량 부족으로 인한 결핍증상을 치료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데 불과하였다.

그러나 분자정확학의 입장은 보다더 나은 건강의 유지와 질병의 예방및 치료에 목적을 두고 이들 영양물질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빈혈에는철·비타민 B12·엽산·동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망간·아연·몰리브덴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며,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단순히 칼슘이나 인그리고 비타민 D 뿐만 아니라, 동·철·마그네슘·아연·망간·크롬·구소·불소 그리고 비타민 C, A 등이 필수적인 것으로

했던 미량미네랄(Trace Minerals)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분자정확학의 연구로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미네랄은 인체의 구성재료로서도 중요하지만 효소의 활성을 좌우하는 體液의 酸·鹽基平衡을 컨트롤하며 특히 代謝의 열쇠를 쥐고 있는 효소의 補酵素(Coenzyme)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미네랄에 대한 하나 하나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즉 代謝에 영향을 미치는 體液의 산·알칼리平衡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것이 유익하리라고 본다.

는데 體液에 있어서는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즉 PH 7.4±0.05 (PH 7.35~7.45) 사이를 弱알칼리性이라 하고, PH 7.4~0.25 (PH 7.35~7.15) 사이를 酸性(Acidosis) 상태, PH 7.4+0.25 (PH 7.45~7.65) 사이를 알칼리性(Alkalosis) 상태 이라고 한다.

신체는 弱알칼리性일때 효소활성이 좋아 代謝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므로 가장 이상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酸性 또는 알칼리性으로 體液이 기울어지면 불건강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알칼리성의 상태인 PH 7~7.15 사이 또는 PH



公害없는 自然食品

폴무원 正農食品

생산품목 : 正農현미효소·正農울무효소·正農두부·콩나물.
自然卵·茶類·미숫가루
自然農法으로 재배된 각종 채소류·곡물류 기타.

구 입 처 : 롯데백화점식품부·신세계백화점식품부·유명슈퍼마켓
전화 : 566-0720·722-7728로 연락하면 편리한 구입처를 안내.

— 자연농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폴무원 —

<9면에서 계속>

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때 10 mg/dl의 칼슘은 절대치를 유지하게 되므로 칼슘이온의 수준이 4 mg에서 3.5 mg으로 떨어지게 되면, 단백질 결합형의 칼슘은 6 mg에서 6.5 mg으로 반대로 향상되게 된다.

이 칼슘이온의 열쇠는 비타민K가 쥐고 있는데, 비타민K는 주로 푸른잎 채소류나 해조류에서 공급되며, 일부는 장내세균에 의해 합성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약알칼리성의 혈액을 유지하는 데에는 해조류나 녹색야채류의 풍부한 섭취와 더불어 腸에 의한 장내유용세균의 번식이 필요하다.

결코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온칼슘(화장약품인 수산화칼슘)의 섭취로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온칼슘(수산화칼슘)은 위액의 염산에 의해 중화되면 염화칼슘으로 되어 흡수되는데, 이것을 칼슘이온으로 만드는 일에는 비타민K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대인의 식생활을 보면 이들 칼슘,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녹색植物群의 섭취가 부족한 반면에, 방부제나 각종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합성제의 무분별한 섭취가 늘어나 장내유용세균에 의한 비타민K의 합성마저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인산함유 청량음료수의 과다섭취로 인하여, 혈액중의 칼슘이온의 적정 수준의 유지가 위협받고 있어 체액의 산성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해 재배된 작물의 비타민·미네랄 수준이 매우 낮아지고 있으며, 이것을 다시 정백가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낮아지게 된다.

한편 각종 스트레스, 산성식품의 과다섭취 등은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의 공급 부족에다 과수요를 불러일으켜 체액의 산알칼리 밸런스를 파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경민족의 후예인 한국인은 加齢과 더불어 低酸症 경향이 두드러져 더욱 미네랄의 흡수율을 낮게 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함이 없이

成人病時代に 새후를얼다... 메가비타민療法

액이 된다. 그대로 많이 마시면 체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위액을 중화하여 단백질의 소화율을 낮추고 심하면 위점막을 손상시켜 궤양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날 石灰石에 불과한 것을 高價의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의식속에 얼마나 酸性體質에 대한 공포가 깃들여 있는가를 웅변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불운은 이 땅에 성인병은 산성체질에 기인하며, 이온칼슘은 산성체질을 중화하여 성인병을 고칠 수 있다는

100g의 동물성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은 1,500mg의 칼슘이 필요하게 된다.

음식물중의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1이 되지 않으면 칼슘의 흡수와 이용에 차질이 생긴다. 왜냐하면 칼슘에 대하여 磷과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拮抗作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슘의 가장 이상적인 제제로는 Bonemeal(牛骨粉제제) 또는 Kelp(海藻灰제제)가 좋다. 이 두가지를 합친다면 가장 이상적인 복합미네랄제제가

성인의 경우 약30g 내외의 마그네슘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약35%는 뼈에 있고, 약 30%는 근육에 있으며 나머지는 체내의 다른 조직에 분포되어 있다.

마그네슘은 糖代謝·脂質代謝·蛋白質代謝로부터 核酸의合成·分解에 관계하는 효소의 활동에 불가결한 미네랄이다.

또한 마그네슘은 비타민B군, C, E, 칼슘, 인, 나트륨, 칼륨의 代謝를 돕는다. 마그네슘은 體液의 산·알칼리평형, 레시틴(Lecithin)의 합성에 필요하다.

체액의 산알칼리 평형이 신진대사에 영향 커 염기평형은 칼륨·마그네슘과 칼슘·나트륨의 균형에

염터리 이론을 유포시킨 일부 자연식전문가들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일부 일본인들의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자연식운동에 스펀서大主義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칼슘(Calcium)

칼슘은 骨形成 體液의 산·알칼리平衡에 필요한 미네랄로서 잘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천연의 트라닐라izer(精神神經安定劑)로서의 가치가 주목되고 있다.

불안·초조·불면등 自律神經系의 변조는 칼슘의 부족과 관계가 깊다. 학교내 폭력, 가정내폭력등의 사회적인 문제도 칼슘의 결핍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칼슘은 스트론튬90의 방사능으로 흉를 막아주며, 카드뮴, 납(Pb)의 중독도 예방해 주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公害防止物質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칼슘의 결핍증으로 骨多孔症, 충치골절,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체에 필요한 미량미네랄의 거의 대부분을 복합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멀티미네랄제제 수준 식품의 차원에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엔 아직 없다. 앞으로 이러한 제제의 개발이 시급하다.

Bonemeal은 염기성 3磷酸5칼슘(Hydroxyapatite)이 주성분이고 그 밖에도 약 14종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Kelp에는 더욱 많은 종류의 미량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다.

美國放射線防護協會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骨成分이 전부 새것으로 바뀌는데에는 약 2백일이 걸린다고 한다. 뼈에는 造骨細胞와 解骨細胞가 있어서 항상 新舊物質이 교체되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뼈를 형성하는 미네랄에는 칼슘이나 인 외에도 동·마그네슘·아연·망간·크롬·철·붕소·니켈·몰리브덴·요오드·리튬...등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칼슘·인·동·마그네슘·아연·망간·붕소

특히 칼스트레스 미네랄로서 신경계통의 흥분을 진정시키는 천연의 신경안정제가 된다.

마그네슘은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방지하는 작용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신장결석, 담석의 형성을 예방한다.

신장결석은 주로 비타민A, C 및 마그네슘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연구보고가 있다.

心筋에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異滅 흥분이 생겨 부정맥을 일으킨다. 최근 미국에서는 심장마비의 마그네슘注射劑가 개발되어 있다.

마그네슘은 糖의 代謝에 관계하는 효소를 자극하여 糖質의 형성과 유지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통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야채나 해조류를 곁들이지 않으면 결코 튼튼해 나 치아를 간직할 수 없다.

마그네슘의 결핍증상은 腎臟結石, 動脈硬化, 筋肉의 경련, 心臟發作, 不整脈, 低血壓, 手足冷症, 단백질代謝장애 그리고 정신신경적인 증상으로서 불안, 흥분, 착란 지각이상, 청각이상, 보행장애 등이 있다.

마그네슘의 공급원으로는 綠黃色야채, 해조, 骨粉, 白雲石(Dolomite) 등이 있는데 칼슘과 수산화마그네슘, 탄산 마그네슘 등은 식후의 복통을 삼가하는 것이 좋다.

수산화마그네슘(Magnesium Hydroxide)은 아주 이상적인 완화제로서 널리 애용되는데, 변비에방과 宿便除去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일본의 西遊道라는 자연요법 창시자, 일체의 化學藥品이나 비자연적인 식품이 지도 금물로 멀리하면서도 유독 수산화 마그네슘만은 평생토록 먹어도 좋은 것이라고 극찬한 것을 보면 알수있다.

마그네슘 결핍은 이온정제염(맛소금)의 사용과 채소류의 섭취부족 그리고 미네랄성분이 부족한 수도물의 섭취에 있다. 푸른채소에 풍부한 葉綠素는 사람의해모글로빈과 동일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다만 다른 것은 염색소에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고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들어 있는 점이다.

우리들의 식단에 더욱 많은 야채와 해조류를 첨가하는 일이 시급하다.

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칼슘제제를 선택할 때에는 약품으로 만들어진 젖산칼슘·염화칼슘·침강탄산칼슘·글루콘산칼슘·제2인산칼슘 등의 단독제제 보다는 자연의 식품으로부터 들어진 복합미네랄제제가 이상적이다.

비타민D는 흡수 또는 생합성된 후에 신장에서 다시 활성형(호르몬과 같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데, 腎不全症에서는 전혀 활성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활성형비타민D제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또한 중년기를 지나면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데, 性호르몬은 副甲狀腺호르몬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性호르몬의 감소는 副甲狀腺호르몬의 相對的增加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骨組織의 칼슘이 遊離되어 骨軟化症이 나타나는데 노인의 골절은 어린이의 그것과 달라서 주로 骨軟化症에서 비롯된다.

마그네슘(Magnesium)

소량의 마그네슘이 心臟마비방지에 큰역할

인체의 0.04%를 차지하는 미량 미네랄 43종이 「생명의 사슬유지」에 필수적이다.

다만 강알칼리의 化工藥品으로 산성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요즘 혈액의 산성화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일본의 웅골한 학자들이 참출해낸 이온칼슘제제는 사실상 그 주성분이 수산화칼슘(Calcium Hydroxide)에 불과한 것이다.

이온칼슘제제의 원료는 골결절이나 산호초인데 탄산칼슘이 주성분이다. 이것을 전기로에서 구우면 산화칼슘(CaO)가 되고 다시 여기에 과열수증기를 가하여 수산화칼슘(Ca(OH)₂)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石灰石(탄산칼슘)→生石灰(산화칼슘)→消石灰(수산화칼슘)의 과정 밖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것을 물에 용해하면 강알칼리성의 용

관절염, 부갑상선기능항진, 근육의 수축기능低下, 신경과민, 不眠, 우울증, 심장박동, 發育不全등이 있다.

칼슘의 결핍을 초래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①精白加工食品, 인스턴트食品의 섭취로 인한 공급부족 ②磷酸飲料, 肉類 등의 酸性食品의 과다섭취로 인한 수요증대 ③胃腸狀態(低酸症·無酸症), 營養狀態(비타민D부족), 腎臟狀態(비타민D를 활성型으로 변환하는 기능상실) 등의 부조화로 인한 흡수불량 ④스트레스 음주로 인한 과잉배설 ⑤미네랄 밸런스의 파괴로 인한 利用不全 ⑥다량의 脂肪·酸·制酸劑·완화제·이뇨제·피린산등으로 인한 흡수장애 등을 들수있다.

동물성단백질을 1일 60g 섭취하는 사람은 800mg의 칼슘의 보급이 필요한데,

國內 唯一의 셀레늄(Selenium) 劑製

세 레 탄

연질 캡슐

1 캡슐중의 함유량
Selenium 50 mcg
(Selenium yeast 83mg)
Vitamin E 200IU

적 용 증

심장질환, 고혈압, 감염성질환, 관절염, 視力疾患等 豫防

원료공급원: HIGH SELENIUM YEAST NUTRITION 21. LA JOLLA, CALIFORNIA 92038.

제 조 원: UNION PHARM. CO., LTD. SEOUL, Busan Korea

유니온製藥株式會社

本 社: 釜山市 東萊區 巨堤洞 714의 16番地 電話: 82-4285-82-5286番

서울事務所: 서울特別市 恩平區 佛光洞 286-51 電話: 385-4728-387-1584番

